

# 양림동 근대 문화유산 관광자원 된다

## 광주시 '역사문화마을' 조성 용역보고회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개화기 선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이 일대 생태를 복원하는 것을 비롯,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최홍종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건축물 원형 복원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185억 투입 양림산·사직산 생태복원도

광주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갖고 내년부턴 2013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아시아문화교류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역사문화마을 사업 대상지는 지난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들의 의료봉사, 사회복지활동의 중심지였던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와 수피아 여중·고, 기독교원 일대 등 20만㎡에 달한다.

광주시가 사업비 185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양림산·사직산 생태복원 ▲선교사 유적지 정비 및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근대 건축물 복원 ▲사직공원

입구 랜드마크 조성 ▲최홍종·정용성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또 ▲수피아 여·중고 및 광주기독교병원 일원 정비 ▲호남 문화예술인의 길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다.

양림산·사직산 생태복원사업은 두 산을 분할하고 있는 도로인 '서양길'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나 숲터널을 조성해 양림산~사직산을 연결하는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다.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양림산 정상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22기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묘역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만들어 기독교 순례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사직공원 입구에 3·1운동 기념 동상과 분수대 등을 설치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원형 복원이 추진될 양림동 남구 양림동 오원 기념각. 광주에서 선교 활동했던 오원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1914년 건립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였다. 광주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선교사들의 주거 등 건축물 복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1910년께 세워져 전쟁 고아의 보육장으로 활용된 우원선 선교사 사택을 비롯 유진벨 선교사가 거주했던 사택 등이 원형복원을 통해 기념관으로 조성된다.

시는 또 사직공원 입구에 3·1운동 기념 동상과 분수대 등을 설치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 YMCA를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자로 활동했던 최홍종 선생 기념관과 중국 팔로교 행진곡 등을 작곡한 광주 출신 정용성 선생의 기념관도 설립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신학대 일대 근대문화 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역사문화마을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 "해외교민들도 광주 U대회 열성"

## 호주 방문 홍보 활동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광주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호주 방문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15일까지 광주광역시체육회 관계자 9명과 함께 호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조창범 호주 대사 등을 만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에 대한 지원과 협조 약속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나 부회장 등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호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광주 전국체전에서 광주시체육회와 재호주 대한체육회(회장 강대완)간에 자매결연을 한 이후 양측간 본격적인 민간스포츠클럽 교류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중 나 부회장은 지난 12일 캔버라 한국대사관을 찾아 조창범 호주대사와 면담을 통해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

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받았다. 조 대사는 "호주 정부에 광주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대한 의지와 타당성을 설명해 광주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부회장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늦게 뛰어든 감이 없지 않지만 광주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부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호주의 스포츠행정과 생활스포츠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돈독한 관계 유지하기 위해 시드니와 광주의 자매결연을 타진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문단의 활동 내용이 호주 동아일보에 실려 현지인들의 광주시의 스포츠 외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조창범 호주대사, 박영국 주시드니 총영사관, 백낙운 대양주



한인회총연합회장, 승원호 호주시드니 한인회장 등을 만나 호주 교민사회와 광주시의 상호 우의를 다지고,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무석기자 mjna@

# 중국 관광객 4,500명 광주 유치

## 광주시, 북경·상해 등 순회 관광설명회 성과

광주시가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등 해외 관광개발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2일~11일까지 북경, 심양,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순회 관광 설명회를 개최, 중국 관광객 4천500명을 광주로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북경 중

국 국제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북경, 상해, 심양 등 현지 관광업체로부터 대규모 관광단을 광주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 열리는 정음성 국제음악제 기간에 중국 음악인을 비롯해 참관단 등 300여명이 광주

를 찾게될 전망이다. 시와 관광업무 제휴협약을 맺은 북경 지역 여행사들도 올 하반기에 팸투어단과 단체 관광객으로 구성된 1천200명을 광주에 보낼 예정이다. 성도 지역에서도 팸투어단 100여명이 광주 전남 관광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1천200여명의 중국인 방문단이 광주를 방문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부모 가정 자녀 직업교육비 지원

## 광주시 매월 25만원까지

광주 지역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직업 교육비와 생활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부모가 1명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올해부터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 기간 생활비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간호조무사, 도매, 미용, 자동차 정비, 특수대형 운전면허 등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취업이 가능한 분야다. 이들 분야에 취업하려는 한부모 가정 자녀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자녀는 매월 최고 25만원까지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급받으며 직업훈련으로 인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생활비도 60만원씩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062-613-2282)이나 각 자치구 복지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4주완성 중·고등 중간고사 대비반

**PSA** 과학 전문 학원

개강안내  
월·수반 3주 31주  
화·목반 4주 1주  
토·일반 4주 5주

모름이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여행사

062-629-5828, 573-5128

모름이 여행사 정기여행행사

##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 난방비 1/3로 줄었다!

난방비 1/3로 줄었다!

3 TEMPIA 062-252-2900 080-252-7117

모름이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여행사

062-629-5828, 573-5128

모름이 여행사 정기여행행사

모름이 여행사 정기여행행사

062-629-5828, 573-5128